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

김 미 영* · 유 리**(한양대)

< 차 례 >

- I. 서론
- II.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지향성
- III. 통일 시대의 간문화적 역량
- IV. 통일 시대 소설교육, 『바리데기』의 가능성
- V. 결론

I. 서론

분단이 지속된 지 반세기를 지나 올해로 70년이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평화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이에 따라 남북 교류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의

* 제1저자, 한양대

** 제2저자, 한양대 박사과정

이질성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통일 관련 담론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었고,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호응을 맞추어 ‘통일교육’의 방안 모색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과 통일 문제를 바라보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안보관을 지니고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시기 구분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을 반공교육(1945~1987), 통일·안보교육(1987~1992), 통일교육(1993~2002)의 순서로 전개되어 왔다고 제시하였다.¹⁾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나뉘어진다. 통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통일을 대비한 교육’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루어질 ‘남북한 통합의 통일교육’도 통일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계의 준비 사항이라 하겠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대상을 들 수 있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교육 대상이 남한 학생들로 한정되지만,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학생 모두 통합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교육도 통일교육의 범위에 포함시켜 남북한 학생 모두 그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개념을 통일 이전의 교육만이 아닌 통일 이후의 교육까지, 그리고 남한 학생만이 아닌 북한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확장시켜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은 도덕과나 사회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

1)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참조.

나 국어과는 언어와 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과와 특성상, ‘통일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 명분이 충분하기에 통일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비하여 교육상으로 실제 실행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연구들은 미비한 수준이다. 그리고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제재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일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 제재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의 기초 작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통일교육의 가능성을 『바리데기』를 통하여 탐색함으로써 통일 이후에 지향해야 할 문학교육의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II.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지향성

1.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역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단일민족이라는 한민족의 특성이 무색할 정도로 70년의 긴 시간 동안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자유로워졌지만 북한은 여전히 폐쇄 국가의 체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랜 시간의 분단 상황과는 반비례하며 분단에 대한 인식 수정, 나아가 통일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공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 화해의 기류가 흐르기까지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통일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화해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반공’에서 ‘공존’으로 바뀌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분단 이후 세대인 학습자들

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절실함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고취시키고, 전쟁의 아픔, 나아가 분단의 상처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을 뛰어넘는, 현대 학습자들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문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통일교육 지향의 흐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의 방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문학, 특히 소설은 작가와 독자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문학은 독자들에게 시대의식을 일깨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통한 교육은 독자들에게 인식, 태도, 가치의 변화를 수반하는 실천적 성격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는 때에 문학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또한 문학교육은 문화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통일 시대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상황으로 본다면, 문학교육은 독자들에게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길러줄 수 있는 통일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통일 시대에는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가 만나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통일 시대는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한 통합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평화와 화해의 형성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공존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한, 공존에 필요한 자질을 학습해야 한다. 문학교육에서는 남북한 모든 학습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통일 시대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의 문학교육은 기존의 통일을 준비하는 문학교육과는 또 다른 제재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그동안 분단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문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단 상황과 관련된 문학 용어는 연구 경향에 따라 전후문학, 전쟁문학, 분단문학, 이산문학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통일문학’을 추가하고자 한다. 통일문학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교육 대상의 작품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시대에 통합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학교육 대상 작품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소설 등장을 고려한 것으로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 소설’이라는 새로운 소설 유형이 출현한 것과 유사하다.

통일문학은 분단문학과 전혀 다른 별개의 장르로 볼 것은 아니다. 통일문학은 통일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문학 제재를 수렴할 수 있다. 통일문학은 전쟁 직후의 상처나 불안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폐쇄된 북한을 이해하거나 동질성 회복의 방법을 담고 있는 문학도 포함할 수 있다. 분단 문학 중에서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문학은 통일문학에 가깝다고 하겠다.

통일 시대를 대비한 문학교육에서 주인공이 전쟁이라는 폭력에 대하여 느끼는 공포나 불안, 상처에 초점을 두기보다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이 펼쳐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북한을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회로를 확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통일 시대의 간문화적 역량

통일은 두 국가, 두 정부, 두 체제, 두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 신념은 다를 수 있지만 남북한 모두 전쟁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단계적 통일에 의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와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북한 문화와의 통합은 사실상 ‘다문화적 상황’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간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통일 시대 문학 제재의 선정 기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간문화적 역량의 개념과 구성 요소

최근 역량과 관련된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은 무엇을 이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 역량의 의미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활용하는 지식, 인지적 능력, 태도, 감정, 가치관, 동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²⁾

역량 기반의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핵심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실행하면 사회적 요청과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역량을 기능이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동기, 태도, 의지와 같은 개인적인 자질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³⁾ 이러한 복합적 능력으로서의 역량을 통일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결부지어 생각해보면 통일 시대 학습자에게 필요한 통일 역량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성된 남북한 문화가 공

2) 이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가능성 탐색”, 『교육종합연구』 8(전북 : 교육종합연구소, 2010), p.151.

3) 이혼정, 위의 글, p.162.

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 이전까지의 북한 현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과 연대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공감하는 소통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6·25 전쟁 후의 분단의 고통과 이를 극복하는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한 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 그리고 통일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일 시대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인 간문화적 역량은 넓은 의미에서 자신과는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⁴⁾ 간문화적 역량은 대체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된다. 통일은 남북한 모두 지금까지와는 현격히 다른 문화적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간문화적 역량은 통일 역량의 일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추병완(2014)은 통일교육에서 간문화적 역량의 중요성을 자민족 중심주의의 극복과 현실성 있는 통일교육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밝힌 바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신의 민족 문화가 타 민족이나 문화에 우월하여 자신들의 기준을 보편화하려는 태도이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체제의 지속으로 인하여 혈통은 같을지언정 문화는 타 민족의 문화를 대면하는 것처럼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통일 직후,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서로 자신들의 문화가 위협에 직면하는 ‘문화 충돌’의 혼란한 사회로 여겨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와 유사한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 직후에 발생할

4) 추병완,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개발”, 『윤리교육연구』 33(부산: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p.356.

여러 양상의 갈등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필요할 것이며, 이때 간문화적 역량은 매우 유효하다고 본다.

또한 통일 추진의 주역이 될 학습자들은 통일 문제를 민족 문제의 ‘당위성’보다 통일로 인해 확보할 ‘실리성’에 더 큰 관심을 둘 수 있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젊은 계층일수록 분단의 직접적 체험자인 기성세대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위적 명제로 통일을 다루기보다는 그들에게 익숙한 미시담론의 문화를 활용하여 교육할 필요도 있다. 이 글에서는 통일 시대의 문학교육의 방법을 간문화적 역량과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간문화적 역량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간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역량’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뛰어 넘어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용하고 있다. 아직 학계에서 간문화적 역량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나 간문화적 역량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공통적 의미망으로 미루어 볼 때, 간문화적 역량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들을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간문화적 역량은 크게 지식, 기능, 태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범박하게 살펴보면, 지식은 학습자들이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얕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능 범주에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갈등 해결 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을 통한 공감, 동질감 회복 등의 내용이 태도 측면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통일 시대에 필요한 간문화적 역량의 내용으로 재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통일 시대에 필요한 간문화적 역량의 범주 및 내용 요소

범주	지식	기능	태도
내용 요소	• 남북한의 생활상과 문화 이해 •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식	• 남북한 소통 기능 • 남북한 문화 충돌 시 갈등 대처	• 상대에 공감하는 자세 • 남북한 연대를 통한 동질성 회복

이러한 간문화적 역량은 통일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으로서 남한과 북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통 과정으로 학습하게 되는 통일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2. 간문화적 역량에 기초한 통일 시대 문학 제재의 선정 기준

통일 시대 학교 교육에서 문학의 역할은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와 문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어과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문학을 통하여 간문화적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통일 시대에는 이러한 간문화적 역량에 기초한 문학 제재의 선정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통일 시대의 문학 제재는 기존의 정전 목록을 참고하되, 새로운 사회 문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부응하는 제재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시대에 요구되는 문학교육은 문학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문학을 통하여 간문화적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할 때 교과서의 제재는 그 내용 자체가 학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작품에서 통일 시대에 맞는 간문화적 역량과 관련되는 내용 요소가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시대에 맞는 제재를 선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간문화적 역량의 범주를 지식, 기능, 태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학을 통하여 간문화적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해 통일 시대 문학 제재 선정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 기능, 태도는 문학 자체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보다 문학교육을 ‘통한’ 지식, 기능, 태도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문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문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능이나, 혹은 문학을 향유하는 학습자의 태도와 관련된 범주라기보다 문학작품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작품 내용을 통한 지식, 기능, 태도와 관련된다. 지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 시대의 학습자들은 작품을 통하여 남북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의 모습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학의 ‘소통’ 기능에 초점을 둔다면 작품을 통하여 한민족으로서 공유 가능한 지점을 발견하여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가 충돌될 때,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학 작품은 남북한 사람들이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동질성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작품은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가치 있는 제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교과서 수록 여부나 작가, 장르 등도 제재 선정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된 작품은 남한이나 북한에서 단독 수록된 작품보다 통일 직후에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따라서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된 이기영의 ‘고향’이나 최서해의 ‘탈출기’와 같은 작품을 먼저 선정하고, 이후에는 통일 시대의 문학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맞추어 제재 선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문학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취할 때에는 배타성과 수령의 우상화라는 경향을 내포한 작품들을 넘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향을 찾아 교재를 편성해야 한다.⁵⁾

통일 시대의 문학 제재 선정 기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2012

5)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124.

고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다. 문학 과목에서의 '교수·학습 계획'에서 밝힌 제재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

- (5)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에 비추어 타당하고 전이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한다.
 - (나) 내용과 형식, 표현 면에서 문학의 전형성을 보여 주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 (다) 학습자의 관심 및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작품을 선정한다.
 - (라) 자아 성찰, 공감과 소통,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참여 의식 등 학습자의 인성 발달과 관련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또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는 세부적인 검정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편찬상의 유의점 중 '내용의 선정' 부분에서 제재 선정의 유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3) 제재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 ①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에 비추어 문학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한다.
 - ② 내용과 형식, 표현 면에서 문학의 전범이 되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 ③ 학습자의 관심 및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작품을 선정한다.
 - ④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적 동질감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 ⑤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
 - ⑥ 지역, 성, 인종, 민족, 계층, 직업, 종교,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편견을 가지게 하는 작품을 피하고, 타인의 삶과 다

6)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한국언어문학』 89(광주 : 한국언어문학회, 2014), pp.196~197에서 재인용.

른 문화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 ⑦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 ⑧ 학습자로 하여금 국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작품을 선정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통일 시대의 문학 제재 선정과 관련성이 높은 문학 교과서의 개정 방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 혹은 북한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와의 만남을 작품을 통해 가능하게 하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 통일 이전에 남한의 학습자에게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을 알게 하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적 동질감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 공통점을 알고 동질감을 고취하는 것을 넘어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타인의 삶과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는 작품’이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작품’ 등의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장 1절에서 밝힌 통일 시대에 필요한 간문학적 역량의 범주인 지식, 기능, 태도의 내용 요소에 맞게 통일 시대의 문학 제재 선정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통일 시대의 문학 제재 선정 기준

범주	선정 기준의 주제	선정 기준의 주요 내용
지식	남북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	한민족으로서의 공통적 역사 지식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
	통일 한국에서의 사회 양상 소개	통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모습
	남북한 소통	한민족으로서의 공유 가능 지점
기능	갈등 대처	다양한 문화 충돌 시 갈등에 대처
	상대에 공감하는 자세	남한과 북한의 편향된 문화 중심주의 극복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픔에 공감
태도	남북한 연대를 통한 동질성 회복	문화적 상상력을 통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를 통한 연대

범주	선정 기준의 주제	선정 기준의 주요 내용
기 타 고 려 해 야 할 요 소	교과서 수록 여부	남한 단독 수록
		북한 단독 수록
		남북 공통 수록
		남북 미수록
	작가	남한 작가
		북한 작가
		외국 작가
	장르	신화, 전설, 민담, 시, 소설 등

Ⅳ. 통일 시대 소설교육, 『바리데기』의 가능성

통일 시대의 핵심적 과제는 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며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소설은 여타의 장르보다 현실에 밀접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소설은 인물들이 시간과 공간적 배경 하에 삶의 모습을 재현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이러한 작품 속의 인물에 공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쉽게 동화될 수 있다.⁷⁾ 문학 작품 읽기에서의 공감은 인물과 인물의 공감, 서술자 혹은 내포 작가와 인물의 공감, 작가와 인물의 공감, 독자와 인물의 공감 등으로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⁸⁾ 이 글에서 다룰 인물에 대한 공감은 독자와 인물의 공감이다. 학습자들은 작중 인물에 대한 삶을 바탕으로 한 공감적 이해를 통하여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파악하

7) 유리, “타자성에 기반한 다문화 소설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 : 한양대학교, 2014), p.25.

8) 정재립, “공감과 치유의 언어, 문학 : 공감의 상상력과 문학교육”, 『어문논집』 69(서울 : 민족어문학회, 2013), p.90.

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공감은 또한 학습자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물의 행로를 따라가며, 그러한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인물과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3장에서 밝힌 간문화적 역량을 기준으로 한 제재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 『바리데기』가 어떤 점에서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제재로 적절한지 탐색해보고, 그 가능성을 밝혀본다.

1. 인물에 대한 공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소설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통일 교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의미에 민족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민족으로 확대된 통일 교육의 입장에서 공동체 학습자들은 어느 한 쪽의 고정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성향이나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소설 교육은 단순히 소설의 내용이나 구조라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교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소설이 시대적·역사적 요소를 반영하는 내적 특성을 지니는 것 외에도 작품 외적으로 사회·문화의 맥락에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회·문화적 상황은 소설을 읽는 학습자들에게 소설교육의 결과로 작품의 내용이나 구조 학습에 추가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통일은 반세기 이상을 다르게 살아 온 남한 문화와 북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문화의 영역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한 공감은 통일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소설교육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바리데기』는 탈북자 ‘바리’의 이야기이다. 바리는 열두 살 되던 해,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였다. ‘바리’가 체험하는 가족의 해체는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난 순

간 이미 ‘바리’의 위기를 맞이한 경험이 있다.

‘바리’는 남한 학습자에게 ‘타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21세기 세계화의 흐름인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흐름에서 배제된, 지구상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이다. 폐쇄된 북한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고, 체제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로 연결된다. 식량 부족의 사태에서 굶주림에 처해진 10대의 바리에게 ‘탈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학습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인 바리의 경험을 통하여 분단 주민들의 현재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구도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북한은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삶도 보장할 수 없는 허약한 국가체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마저도 경제력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북한의 인민 ‘바리’는 남한 학습자들에게 열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타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배급도 끊기고 노임도 나오지 않으면서 광부들도 일을 때려 치우고 식량을 구하러 나돌아 다니기 시작했다. 지방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일손을 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외삼촌은 그날밤에 두만강을 건너갔다. 얼마나 아버지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다. 외삼촌은 직접 연길에 들어가서 알아보겠다고 했다. 만약 결손을 채우지 못하면 그는 당의 엄중한 문책을 받고 교화소에 가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이 되자 국가의 재물을 축낸 사람들은 더욱 엄혹한 처벌을 받았다. 외삼촌은 그날 강을 건너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⁹⁾

아버지의 도움으로 취직했던 외삼촌이 남한으로 탈출하게 된 사건은 가족 해체의 도화선이 된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는 모습은 북한이 여전히 폐쇄성을 지닌 사회이며,

9) 황석영, 『바리테기』(창비, 2007), p.47. 이후부터는 쪽 수만 표시.

인민보다 정치권력이 우선하는 공간으로서, 남한의 학습자들에게는 낮은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지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타인이 처한 상황을 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것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학습자들은 『바리데기』를 통하여 북한 현실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한 인물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바리’는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체화하고 그 속에서 생존을 모색한 인물이다. 남한의 학습자들은 이렇게 남한의 현실과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바리’라는 인물에 공감하는 단계에서 대상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먼저 주체와 대상과의 분리를 경험할 수 있다. 공감은 공감하는 주체와 공감의 대상 사이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서 분리란 공감의 주체 스스로가 공감의 대상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또는 거꾸로 자신을 공감의 대상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¹¹⁾ 자신과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타자적 존재로서의 ‘바리’에 대한 인지를 통하여 학습자는 대상과의 공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는 타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완전히 낯설지 않은 타자라는 점이다. 이것은 『바리데기』를 통한 통일 시대 문학교육으로서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공감으로 가는 앎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낯설면서도 한편은 낯설지 않은 타자로서의 모습은 공감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이지만 적국(敵國)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된 채, 소식조차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바리’ 개인의 정체성은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거리를 뛰어 넘어 민족 국

10) 박치범, “문학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 고려대학교, 2015), p.24.

11) 박치범, 위의 글, p.27.

가라는 우리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바리’를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타자로 인식한 이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물을 개별화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안은 연대이다. 이들이 ‘우리’와 민족으로서의 결속과 연대를 이루게 될 때, 『바리데기』에서 민족 합일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타자이지만 ‘바리’를 개인을 넘어선 민족의 대변자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작품의 곳곳에 나타난다.

나는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의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그의 혼을 보았다. 그는 흐린 날 굴뚝에서 막 새어나온 연기가 뭉친 것처럼 보였다. 너 어디 가니? 하고 그것이 말을 걸었다. 부모님 찾아가요. 헛것이 중얼거렸다. 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 것들 다 죽어서.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아 배고프다, 밥 내라, 먹을 걸 달라, 연기 같은 헛것은 계속 허공에서 맴돌며 중얼거렸다. 칠성이가 으르렁, 하면서 이빨을 드러내자 그것은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졌다.(『바리데기』, 87-88)

‘바리’는 민족 공통 신화인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현대적 변주상이라 할 수 있다. 무가의 주인공 바리데기처럼 소설 속 ‘바리’도 신이한 힘을 지니고 있다. ‘바리’는 고조 할머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샤먼적 능력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동물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미 죽은 귀신과도 대화를 나누거나,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과거를 보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매로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근대적 세계화에 의해 배제되었던 환상적인 요소들로 볼 수 있다. ‘바리’의 영적인 능력에 의한 초현실적인 사건들과 혼령들의 출몰은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서구의 합리주의적 세계관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다.¹²⁾ ‘바리’가 지닌 이러한 능력들을 통하여 남북한이 오랜 시간동안 지녀온

12) 강미라,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북 : 한국교원대학교, 2009), p.48.

공통의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통일 시대의 문학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바리’는 탈북여성으로 분단국의 수난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사상 차이와 소련의 해체는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고립된 북한의 경제 체제는 북한 주민에게 생계 위협의 원인이 될 만큼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굶주린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국경지방을 헤매는 일은 강변의 여러 마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었는데 남평 쪽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강변의 숲속이나 민가의 창고에서 기진하여 얼어 죽은 시체가 발견되고는 했지만 중국 마을의 외진 집에서 이쪽 일가 죽어 살해당한 것은 처음 일이라고 한다. 중국 공안들이 부근의 산 속을 살살이 뒤지고 호구조사를 시작했다.(『바리데기』, 69)

‘바리’의 타자화 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학습자들은 그녀를 타자화시킨 권력 혹은 전쟁이라는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바리’를 우리와 완전히 다른 타자가 아닌 연대 가능성이 있는 타자로 인식할 수 있다. ‘바리’의 모습을 통하여 타자로서의 ‘바리’의 삶을 인식한 이후에 이를 통해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경험한 학습자가 대상에 대한 연민이라는 조건을 덧붙이게 됨으로써 타자 지향의 윤리적 공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¹³⁾ 따라서 ‘바리’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할머니’나 ‘칠성이’가 조력자로 등장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적 내용이라는 거부감보다는 이들에게 더 많은 조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처지를 ‘바리’의 처지에 치환함으로써 인물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단계에까지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자적 존재로서 ‘바리 알기’에서 시작하여 민족적 존재로서의 ‘바리 느끼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13) 박치범, 앞의 글, p.33.

인물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한이 본래 지니고 있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바리데기』는 민족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통일 시대의 문학교육을 위한 제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민과 동질성 회복

소설의 배경은 작중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어 학습자가 소설의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다룬 소설을 접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그 시대의 사회 문제나 시대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소설에서의 공간 이동은 작품의 여러 상황을 바꾸어 놓아 인물이 이동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서사를 이끌어 가기도 하며 인물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작품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읽는다는 것은 학습자가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그 공간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체험하며 인물 의식의 변화에 동참하는 작업이다.

『바리데기』의 전반부는 ‘바리’의 어린 시절 순수했던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공간의 묘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바지의 단독주택에 살았다. 봄이면 마을 빈터의 마른 잡초들 사이에서 한무리의 진달래들이 이 묶음 저 묶음 다투어 피어나 아침저녁 노을에 더욱 붉게 타오르고 드높은 동편 하늘가에 아직도 눈을 하얗게 엮은 관모산이 아랫도리를 안개 속에 감추고 떠 있었다. (『바리데기』, 7)

이렇게 묘사된 고향의 공간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바리’의 삶이 평온했음을 예측하게 한다. 평온한 삶의 공간은 점차 인민들이 살기 힘든

공간으로 변하면서 인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비극적 상황에 이른다. 사회적 상황은 점점 더 훼손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고향을 되돌리기에 어려워졌고, ‘바리’ 역시 이러한 내몰림에 휩쓸려 더 나은 상황을 찾아 이주의 길에 오른다. 원형적 고향의 이미지를 상실한 공간에서 주인공은 본래 자신의 모습을 지속하며 살기 어렵다. 이로 인한 이동을 통해 인물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북한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생존을 위한 자발적 이동의 과정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 ‘바리’가 국경을 넘는 행위는 민족의 수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은 서사무가 ‘바리테기’에서 바리공주가 생명수를 찾아 떠나는 모습과 관련지어 볼 때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긴박한 여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주 과정은 인물들에게 가혹한 시련이기에 작품 전반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학습자들 역시 무거운 여정을 따라가며 암울한 상황 속에서의 이주를 통한 내면의 불안함을 경험하리라고 본다.

『바리테기』에는 현실적 공간 외에 환상의 공간도 등장한다. 환상적 공간은 ‘바리’의 무속적 혈통과 관련 있다. 서사 진행의 과정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바리’의 삶도 경계선에 위치한 불안한 삶, 또한 전환기적 삶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리’가 분단 시대의 고통 받는 민중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격랑 속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¹⁴⁾하는 것이다. ‘바리’가 탈북하여 주변부인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의 위기를 보여주며 그 위기가 인간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극적인 이동이 된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택한 중국에서도 ‘바리’는 가정부나 안마사 등의 일을 하며 연명하는 수준에 머문다. 약소국의 인민이었던 ‘바리’의 삶은 힘들었던 이동의 과정 후 안락한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위기에 내몰린 삶이다.

14) 신철하, “『바리테기』 해석적 모험”, 『한국학연구』 30(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pp.198~199.

학습자들은 이러한 ‘바리’의 이동에 동참하며 남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생존의 위기,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등을 상상을 통하여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작중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며 작품을 분석해 내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상상을 통해 우리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느끼게 될지를 상상할 수는 있다.’라고 하였다.¹⁵⁾ 학습자들이 ‘바리’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어도 작품을 통하여 ‘바리’를 자신에 가깝게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바리’의 힘들었던 이주의 과정을 보고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문학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시간’과 ‘상상력’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¹⁶⁾

‘바리’의 이주 경로는 중국, 영국으로 나타난다. ‘바리’가 더 나은 공간으로 상정한 중국은 현실적으로 이상적 공간은 아니었다. 공간의 이동은 다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이것은 또 다른 이상적 공간을 향해 이동하는 원인이 된다. 서구 중심부로의 이동은 그 과정부터 험난하다. ‘바리’가 영국으로 이주하는 밀항 과정은 중국으로 입국하는 과정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묘사되어 있다.

샤면에서 스무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배에 탔다. 그들은 우리처럼 배가 떠나기 직전에 승선했는데 다른 화물을 싣는 이들 동안 우리는 초주검이 되어야 했다. 뱀단 사내들은 우리를 나누어 화물이 가득 찬 컨테이너 속에 밀어넣었다. 우리는 그야말로 뱀처럼 짐과 짐 사이의 비좁은 틈바구니에 파고들어서 있어야 했고 상반신을 끼우고 다리썹을 하기도 했다. 용변도

15) Adam Smith 저, 박세일·민경국 역, 『도덕감정론』(서울 : 비봉출판사, 2009), p.4.

16) 고정희, “연민을 이끌어내는 문학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치료연구』 26(서울 :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p.217.

그 자리에 선 채로 보았고 밥은커녕 물 한모금도 얻어먹지 못했다.(『바리데기』, 127)

식량난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비교할 때, 서구의 중심국인 영국으로 건너가는 과정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영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름으로 호명되지 않고, 번호로 호명된다. 남한 학습자에게 타자로 인식되었던 ‘바리’는 이때부터 동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남북한 학습자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북한→중국’으로 가는 경로보다 ‘중국→영국’으로의 경로에서 더 확연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바리데기』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보다 이주의 상황이 초점화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는 목격자로서 인물에 동질감을 느끼며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자신을 투입시키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이주에 동참하게 된다. 작품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타자의 삶 속에 상상적으로 들어설 수 있거나, 그 같은 동참과 관련된 정서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¹⁷⁾ ‘바리’에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두 국가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지만, 세계로 눈을 돌리면 두 국가는 한민족으로 다시 개념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황석영은 두 국가로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제1세계인 중심국 영국으로 이주하는 ‘바리’를 통하여 민족의 문제를 세계의 시각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¹⁸⁾

학습자는 작품에 나오는 공간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

17)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 14(서울 :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pp.41~78.

18) 김인숙,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민족 문제”, 『한국학연구』 41(서울 :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p.182.

도 작품에 묘사되는 모습과 자신의 유사한 다른 경험들을 상기하며 작품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독자는 추체험할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세계를 상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연민에까지 이르게 된다.

‘바리’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영국으로 가는 동안 주변국의 많은 인종과 이질적인 문화와 만난다. 중심국은 이미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으로 인하여 주변국을 수용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자의 문화를 포섭하고자 한다. ‘바리’는 영국으로의 이동과 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 그녀가 중심국으로부터 배제된 제3세계 ‘하위주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바리데기』에서 남한의 학습자들은 ‘바리’를 사회·경제·문화에서 열등한 타자로 인식하지만, 영국이라는 공간은 이러한 차이보다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에 더욱 초점을 두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바리’의 강대국으로의 이동을 연대와 소통의 가능성을 지니는 이동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앞서 밝힌 제재 선정 기준의 내용에 맞추어 통일 시대 소설교육 제재로서의 『바리데기』의 가능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통일 시대 소설교육 제재로서의 『바리데기』의 가능성

선정 기준의 주요 내용	『바리데기』의 가능성
한민족으로서의 공통적 역사 지식 ¹⁹⁾	남북이 공유하는 설화에서 한국 문학의 역사 교육 가능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	1. 주인공이 21세기 세계화의 흐름인 자본주의에서 배제된, 고립된 경제 형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식량난을 겪게 됨 2. 인민보다 정치의 권력이 우선하는 폐쇄적 정치 형태로 인하여 주인공 가족의 해체가 일어남

19) 통일 이후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형이 통합적 인간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지식의 교육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통합형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문학은 인간의 마음과 삶

선정 기준의 주요 내용	『바리데기』의 가능성
통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모습	(통일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다룬 작품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내용 없음)
한민족으로서의 공유 가능 지점	1. 비서구 국가에서 공유 가능한 사면적 능력을 지닌 인물 2. 샤머니즘, 남아 선호 사상, 효 사상의 설화 내용 표출
다양한 문화 충돌 시 갈등에 대처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타국에서 다른 문화와 공존할 때 적응하는 모습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모습이 발견되고, 이에 적응하는 모습 등을 통해 통일 한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 가능함)
남한과 북한의 편향된 문화 중심 주의 극복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에 공감	고난을 겪는 인물에게서 타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타자화 시킨 다른 권력 혹은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 체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민	인물이 탈북하여 주변부로 가는 상황, 제1세계 서구 중심부로 가는 이동 상황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상상적 체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를 통한 연대	중심부로 이주하여 그 상황에서 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 연민에 바탕을 둔 소통의 가능성 발견
남한 교과서 단독 수록	X
북한 교과서 단독 수록	X
남북 교과서 공통 수록	X
남북 교과서 미수록	O
남한 작가	O
북한 작가	X
외국 작가	X
신화, 전설, 민담, 시, 소설 등의 장르	(무속 신화를 기반에 둔)현대 소설

을 구체적 형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문학의 역사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역사적 지식으로 가장 먼저 교육되어야 할 것은 한국 문학의 역사이다. 문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무엇을 생각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가를 아는 일이다.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조는 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김대행, 2008 : 83).

V. 결론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이지만 통일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시대의 교육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교육보다는 문학 작품 속에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의 상황 등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에 공감하도록 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²⁰⁾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통일 시대에 필요한 능력으로 간문화적 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구성 요소를 밝혔다. 간문화적 역량이란 넓은 의미에서 자신과는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간문화적 역량의 구성 요소를 먼저, 지식, 기능, 태도의 범주로 나누고, 지식의 내용 요소로는 남북한의 생활상과 문화 이해,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식, 기능의 내용 요소로는 남북한 소통 기능, 남북한 문화 충돌 시 갈등 대처 능력을, 마지막으로 태도의 내용 요소로는 상대에 공감하는 자세, 남북한 연대를 통한 동질성 회복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통일 시대 문학 제재의 선정 기준을 탐색하였다. 제재 선정의 기준에 따라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통일 시대 문학교육을 위한 제재로 적절한 이유와 『바리데기』를 통한 통일 시대의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바리데기』의 주인공 ‘바리’가 북한에서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동참하며 학습자들은 인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리데기』는 분단체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디아스포라적 이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바리’의 이주를 통하여 학습자

20) 유성호, “문학 교육과 통일 교육—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論文集』 5(충북 :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2006), p.33.

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타자로서의 확장된 ‘바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바리’에게 공감하며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리’의 이동을 통하여 ‘바리’가 이동하는 공간을 상상하며 ‘바리’의 이주에 동참함으로써 한민족으로의 공동체 정신을 작품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은 동시대의 시대정신과 사회 문제를 반영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바리공주’가 찾던 생명수가 『바리데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작가 역시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둔 ‘바리’에게의 생명수는 ‘연대와 동질감 회복’이 아니었을까? 한민족으로서의 연대와 동질감 회복이 통일 교육의 중요한 도달점으로 볼 때, 이러한 의미에서 『바리데기』는 통일 소설 교육의 제재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5년 4월 30일에 접수하여 2015년 6월 3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15년 6월 9일에 게재를 확정함.

참고문헌

- 강미라(2009),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고정희(2013), “연민을 이끌어내는 문학과 도덕적 상상”, 『문학치료연구』 26, 한국문학치료학회.
- 김대행(2008),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인숙(2012),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민족 문제”, 『한국학연구』 4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박기범(2014),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한국언어문학』 89, 한국언어문학회.
- 박치범(2015), “문학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신철하(2009), “바리데기, 해석적 모험”, 『한국학연구』 3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유 리(2014), “타자성에 기반한 다문화 소설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유성호(2006), “문학 교육과 통일 교육—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論文集』 5,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 이혼정(2010),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가능성 탐색”, 『교육종합연구』 8, 교육종합연구소.
- 정재림(2013), “공감과 치유의 언어, 문학: 공감의 상상력과 문학교육”, 『어문논집』 69, 민족어문학회.
- 정재찬(2004),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 14, 한국문학교육학회.
- 채지영(1998), “남북한 현대 소설 교육의 비교 및 전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추병완(2014),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계발”, 『윤리교육연구』 33, 한국윤리교육학회.
- Adam Smith 저, 박세일·민경국 역(2009),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기본 자료>

-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황석영(2007), 『바리데기』, 창비.

김 미 영

전자우편 : hypaper@hanyang.ac.kr

유 리

전자우편 : leekhyl@hanmail.net

〈국문초록〉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

김 미 영 · 유 리

본고에서는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를 대상으로 통일 시대의 문학교육을 위한 제재 가능성을 탐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통일 시대에 필요한 역량인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에 두고 이에 기초한 통일 시대 문학 제재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간문화적 역량의 개념을 살피고, 이를 지식, 기능, 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의 지식, 기능, 태도는 문학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문학을 ‘통한’ 교육 내용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간문화적 역량에 기초한 통일 시대 문학 제재의 선정 기준 역시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 외에도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남한과 북한 교과서 수록 여부와 작가, 장르를 추가하였다. 제재 선정 기능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민족으로서의 공통적 역사 지식,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를 통한 연대의 내용까지를 다루었다. 『바리데기』의 ‘바리’는 이러한 이해와 공감, 연민과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인물이다. 또한 『바리데기』는 민족 공통으로 수용 가능한 바리데기 설화 관련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학습자 모두에게 거부감을 줄일 수 있어서 남북한의 소통을 문학 작품을 통하여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리데기』는 통일 시대의 문학교육의 제재로 다루기에 적절하다.

■ 핵심어 : 통일 시대, 문학교육, 바리데기, 소설교육 제재, 간문화적 역량

〈ABSTRACT〉

A Study on Intercultural Competence, A Way of Literature Education in the Reunification Era

—Focusing on Hwang, Seok-young's 『Baridegi』—

Kim, Mi-young · Yu, Ri

This paper explored the possibility of using Hwang, Seok-young's novel, 『Baridegi』 as a material for literature education in the reunification era. For this study, the selection standard of literary materials in the reunification era which is based on intercultural competence, was established. First,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was considered and this was divided into knowledge, function and attitude. Here, knowledge, function and attitude are focused on the educational contents 'through' literature rather than the contents 'regarding' literature. 'Bari' is the character who helps learners reach an empathic understanding and restore a pity for diaspora and homogeneity. 『Baridegi』 can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rough literary works by reducing resistanc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n learners, since it is possible to start with the 『Baridegi』 folk tale which can be accepted commonly. Therefore, 『Baridegi』 is good to be used as a material for literature education in the reunification era.

■ **Key words** : Reunification Era, Literature Education, Baridegi, Novel Education Material, Intercultural Competence